

HPAI 발생 변수에 따라 종계공급 차질 가져올 수도

육종업계의 새로운 변화

지난 1960년대 외국으로부터 수입종란이 처음으로 수입되면서 우리 양계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기존의 재래닭들보다 능력이 우수한 품종으로부터 대량으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이를 기폭제로 다양한 품종들이 국내에 선을 보였다. 1960년대 말에는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하이라인, 세이버 등 원종계까지 국내에 들어왔고, 1970년에는 일부업체에서 병아리를 동남아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천호부화장(현 (주)마니키)에서 국내 자체기술로 육종한 마니커와 마니나 품종을 만들어 국내에 보급하기도 하였지만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국내유일의 보유 품종이 사라지는 비운을 맞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종계 및 원종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외국의 여건변화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도 크게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과거 여러 품종 회사로 나뉘어져 있던 원종

계 · 종계 회사들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 울타리(웨스조안스 그룹)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울타리 속에서 육용계는 아비아젠 그룹으로 분리되어 로만, 아바에이카, 로스가 생산되고 있으며, 산란계는 하이라인, 로만, 낙칙이 업종별로 분업화되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HPAI 발생과 금수조치

영국정부는 지난달 5일 스코틀랜드 지역의 죽은 백조에서 H5N1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영국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여파가 쓰나미로 다가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특히, 닭고기 최대 생산 및 수출국인 브라질은 HPAI가 발생하면 축산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수출입에 큰 비상이 걸려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전체 양계산업이 한 바탕 요동을 친 바 있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이 질병에 대한 경계가 남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HPAI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종계(PS)와 원종계(GPS) 수입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본회에서 추진중이던 검정업무도 유럽으로부터의 출품예정이던 일부 품종이 수입금지에 둑이면서 차질을 가져온 바 있다.

원종계, 종계 수입 유럽 의존도 크다

유럽은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원종계와 종계를 수출하고 있는 중심지의 하나이고, 특히 우리나라 는 육용원종계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유럽에서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며, 종계는 육계와 산란계 전량을 유럽에서 들여올 정도로 유럽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겠다.

지난해 수입된 원종계 및 종계현황을 보면 육용원종계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9만수(로스), 형가리에서 9,194수(하코)가 수입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 108,431수(코브-48,706수, 아바에이카-59,725수)가 수입되어 유럽으로부터의 의존도가 48%에 달했으며, 육용종계는 프랑스로부터 93,970수(싸소-90,850수, 레드브로 3,120수) 들어오면서 전량 유럽지역에서 수입된 바 있다. 또한 산란종계의 경우도 프랑스로부터 24,000수(이사브라운), 독일로부터 129,789수(로만브라운)로 전체 100%를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행히 현재 HPAI가 발생되지 않은 미국으로부터는 산란원종계(하이라인브라운-9,030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도 이변이 없는 이상 육용·산란원종계



272,771수와 종계 461,000수가 지난해와 같은 지역에서 들여올 것으로 종계 양허관세 추천이 이루어졌으나 독일 등에서 발생한 HPAI로 인해 금년 4월이후부터 일부업체들이 추진중이던 수입일정이 지연되면서 관련업체 및 업계에서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로스의 경우 금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138,000수가 예정되어 있어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내 병아리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관련인들은 진단하고 있다. 수입재개가 되더라도 청정국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개월 뒤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관망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병아리 공급 당장은 큰 문제 없을 듯

일부 유색계가 프랑스와 형가리에서 수입이

예정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육계분야는 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로스와 아바에이카의 원종계와 종계는 영국, 미국,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등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지역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수입선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브는 미국의 타이슨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로스의 경우 영국에서 지난 3월에 발생된 HPAI가 야생백조에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생보고가 없을 경우 1달 이내에 수입이 재개될 수 있어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유럽지역의 HPAI발생으로 이 지역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일부 채란계 품종의 수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육용계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급지역이 분포되어 있어 방법은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육용계처럼 여유롭지가 못하다. 즉, 유럽의 덴마크 등 비발생국이나 호주 등 일부 아시아지역으로 수입선을 바꿀 수 있지만 이곳에서도 기본적인 생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여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관련업체에서는 현재의 종계로도 1~2년간 병아리를 실용계농장에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 수입예정이던 일부 업체의 이사브라운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수입선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향후 추이를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본회를 비롯, 관련업계는 정부 등과 협의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경우 수출지역이 HPAI가 문제되었던 곳으로부터 반경 400km밖에 있을 경우 수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는 방법론이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 모색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채란계와 육계 모두 병아리 공급에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황이 좋아져 6개월 이후 수입이 다시 재개되면 큰 문제없이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최근의 HPAI 확산추세를 볼 때 원종계와 종계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도 발생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유럽에 지속적인 발생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장 유럽에만 문제가 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종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원종계와 종계 수입에 문제가 발생되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병아리 파동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HPAI의 발생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면서 업체들간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계업계를 함께 이끌어간다는 생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

